



전도심 기억을 담다 도시재생 공간 탐색 (7) 케왓



1 철거 위기를 딛고 음식 주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한 케왓 전경. 2 케왓 1층에서 김진경 베지근연구소장의 강의로 연대리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3 책방 달래에 놓인 책들. 서점이면서 요리책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4 이지는 베지근연구소 교육팀장이 로컬시장 탐방 쿠킹클래스 참가자와 함께 계란돈가스를 만들고 있다.

할망들 지혜 담긴 제주음식 가치 나눈다

“간판에 생소한 메뉴가 보일 겁니다. 잔치꽃밥인데요. 제주에선 가문 잔치 음식으로 닭을 통째로 튀겨 그 위를 예쁘게 꾸몄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볼 수 없고, 저 가게 간판도 조만간 떼어낼 거예요.”

7개의 시장이 모여있는 제주동문시장을 안내하며 갈치, 지름떡, 꿩과 메밀, 고사리, 유채기름 등 식재료와 음식 이야기를 풀어내던 이지는 베지근연구소 교육팀장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제주음식들이 있었고 꽃담도 그중 하나였다. 이 팀장을 따라 1시간 넘게 시장을 둘러본 뒤 케왓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엔 제주음식을 만들 차례였다. 여행길에 ‘동문시장 탐방 쿠킹클래스’를 신청한 참가자는 독새고기 튀김(계란돈가스)과 지름떡을 요리하며 또 다른 제주를 만났다.

지난 23일 케왓(제주시 관덕로 17길 27). 탐라문화광장 조성 과정에 철거되지 않고 지금의 제주책방·사랑방(고씨주택), 산지천갤러리(녹수장, 금성장)와 더불어 살아남은 유성식품이 있던 곳이다. 산지향 어선에 부식을 납품했던 유성식품은 칠성로 골목으로 이사해 그곳에 다시 문을 열었고, 옛 유성식품 자리엔 제주음식 주제 커뮤니티

탐라문화광장 옛 유성식품 음식 주제 공간으로 탈바꿈

베지근연구소 운영자 선정 재래시장 탐방 쿠킹클래스 원도심 음식여행 등 진행

공간 케왓이 들어섰다.

케왓은 제주방언으로 마을 사람들이 출자해 초가 지붕을 잇는 띠(세) 등을 공동 경작하던 밭을 의미한다. 제주도 위탁을 받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간 운영자를 공모해 지난해 6월부터 ‘제주음식문화 크리에이팅 그룹’인 베지근연구소가 꾸려가고 있다.

케왓 1층은 ‘달래’를 뜻하는 방언인 ‘드름마농’으로 이름붙인 카페테리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에 놓인 책방 달래는 서점이면서 음식 인문학독서모임 등 요리책에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2층은 ‘베지근’ 공간으로 로컬시장 탐방 쿠킹클래스 등 재래시장에서 제주인들의 삶과 지혜를 찾고 시장에서 구매한 식재료로 제주음식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이날 케왓은 방문객들로 북적였

다. 제주대박물관 역사문화박물관 대학 시민강좌 일정으로 김진경 베지근연구소장이 강의를 맡아 선대리 체험이 진행됐다.

제주음식을 공부하는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베지근연구소 사람들에게 원도심은 ‘화수분’ 같은 곳이다. 제주향, 산지천, 동문시장 일대를 두 발로 걸으며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음식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일뤼트삼촌과 함께 하는 원도심 음식여행’도 그런 프로그램이다. ‘고국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흔분식장려운동과 건면’, ‘제주할망이 만들어준 음식: 1970년대 이전 제주음식 이야기’, ‘제주산업음식의 시작-일제강점기 통조림 산업 이야기’ 등에 이어 지금은 11월 운영될 ‘탐라순력도에 담긴 진상의 역사-제주 진상문화와 궁중음식’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진경 소장은 “제주음식을 기반으로 교육상품 판매, 교구 제작, 원도심 아카이빙북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관광객은 물론이고 제주의 초·중·고 학생들이 잊혀져가는 제주음식을 배울 수 있는 향토자료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오늘날 다시 그린 탐라순력 ‘성산관일’

창작공동체 우리 회원전 300여 년 전 일출 재해석 해가 뜨는 장엄함 너머에 제2공향이 맞아갈 풍경들

18세기 초 제주도의 자연, 역사, 산물 등이 기록된 화첩인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제주 전업작가들로 구성된 ‘창작공동체 우리’는 2005년 창립 이래 탐라순력도에서 모티프를 따온 ‘탐라순력’을 주제로 변화하는 제주와 정체성의 문제를 시각예술로 표현해왔다. 열여섯 번째를 맞는 2020년 회원전에는 탐라순력도에 들어있는 ‘성산관일(城山觀日)’을 택해 300여 년 전 제주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펼쳐놓고 있다.

성산관일은 성산일출봉에서 해 뜨는 광경을 바라보는 그림이다. ‘우리’ 회원들은 오늘날의 성산일출봉에서 느끼는 단상을 회화, 도예, 조각 등으로 풀어냈다. 붉은 빛 해가



유종욱의 도자조각 '바라보다'

장엄하게 떠오르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산일출봉을 묘사한 작품 한편에 제2공향 예정지인 성산의 오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난다. 제주에 두 번째 공향이 생기면 사라질 산과 바다, 숲과 나무, 갈 곳을 잃게 되는 해안가 철새, 이름이 지워질 못생명들이 자리하고있다. 거기, 제주 바람을 맞으며 서로 마주하고 있

는 소년과 소녀도 보인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두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물려줄 제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떠올리게 된다.

강동균, 김현숙, 김영훈, 김용주, 김지은, 김현숙, 박금옥, 유종욱, 전영실, 조윤득, 홍진숙 등 11명의 작가가 출품했다. 이달 29일까지 문예회관 2전시실.

전선희기자

온라인레지던시에 예술의 과정

스튜디오 ‘... 과정과 광장’ 김현성·이현태 작가 참여

동영상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레지던시가 펼쳐지고 있다. 스튜디오(Sssstudio)가 기획한 ‘온라인레지던시, 과정과 광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의 현장, 예술

의 과정을 아카이빙하고 동영상 채널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작가는 전통공예 소목을 바탕으로 조각 작업을 하는 김현성, 시각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미지와 소리를 재료로 탐구하는 이현태 작가다. 김 작가는 제주 목가구 ‘살레’에 대한 탐구와 리서치를 벌이고, 이 작가는 제주 4·3과 시간, 현상

사이의 형태와 과정을 아카이빙한다.

온라인레지던시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28일 오후 3시에는 문화공간 양 전시실에 그 과정을 펼쳐내고 공유하는 24시간 라이브스티밍, 작가·자문위원·기획자가 모여 온라인레지던시와 공유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세스비트 광장이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스튜디오 sssstudio’ 나 인스타그램(instagram.com/sssstudio____)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아트페스타 현장 관람 가능

제주시가 주최하고 아트페스타인제주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아트페스타인제주(10월 23일~11월 1일) 실내 전시도 현장에서 볼 수 있다. 당초 실내 전시는 산지천갤러리만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하나새마을금고도 인원을 제한해 현장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시 장소는 산지천갤러리(월요일 휴관), 야와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수상·수변, 대안공간으로 변신한 하나새마을금고 1~2층이다. 특히 하나새마을금고 2층엔 청소년, 성인 등 400명이 참여한 ‘시민 웰빙 프로젝트’ 작품을 걸었다.

제주대 인문주간 행사 다채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도시 사업단(소장 조현천)은 2020년 인문주간을 맞아 이달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주시 비오틀갤러리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간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열다섯 번째 ‘인문주간’ 행사에서 제주대는 상설전시인 ‘인문학으로 힐링하다!’,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일러스트와 제주신화’, 샌드아트 시연과 체험으로 구성된 ‘샌드아트와 함께하는 제주역사문화나들이’ 등을 준비했다. 모든 과정은 무료 운영된다. 문의 754-2333.

우리 가곡과 제주의 노래

제주아트센터(소장 강경호)와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회장 김선영)가 손을 잡고 제주 노래와 춤을 펼쳐놓는다. 이달 27일 오후 7시부터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우리 가곡 제주의 노래’다.

국악협회제주도지회는 제주민요를 준비했고 무용협회제주도지회는 제주해녀를 소재로 만든 무용극 ‘해풍’을 선보인다. 장성일, 이정원, 변승욱, 이동명, 김승철, 현선경, 강혜명, 윤환성 등 성악가들은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 아리아, 가곡 ‘거문도 뱃노래’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728-1509.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